

과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?

〈 마 5:5, 수 4:19~24 〉

1. 땅따먹기 놀이 같은 인생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? (마 5:5)
2.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땅따먹기 전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(민 13:28,32)
3. 자녀 교육에 올인 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? 그렇게 해서 들어간 땅은 약속의 땅입니까, 아니면 거민을(자녀를) 삼키는 땅입니까? (민 13:32)
4. 땅을 선물로 받으려면 온유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언약궤를 따라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? (마 5:5, 수 3:2~3)
5.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? (수 4:22, 수 3:9~11)
6. 자녀들과 함께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
7. 우리 모두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? (수 4:24)

■ 함께 기도합시다.

- 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영육간의 필요한 기업을 풍성히 얻게 하소서.
- ②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게 하소서.
- ③ 김은호 담임목사님 안식주 기간에 쉼과 회복을 누리며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모든 사역들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소서.